

# 인도네시아 주간 경제 동향 (2023. 3월 2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3.3.10.금)

## 다운스트림

- ☐ 에너지부 “주석 가공설비에 4천억 루피아 필요” (CNN Indonesia 3.3)
- ☐ “산업계 정치로 자원다운스트림 정책 이행 어려워” (Media Indonesia 지면 3.4)
- ☐ 니켈 다운스트림 로드맵(~2045년) (Rakyat Merdeka 지면 3.9)

## 전기차 (인센티브)

- ☐ 인니 정부 전기차 인센티브 발표 주요 내용 (정부 발표 및 언론보도 종합)
- ☐ 전기배터리 투자 유치 활발해질듯 (Bisnis 1면 3.8)
- ☐ 올해 전기오토바이 제조사 경쟁 치열할 듯 (Binis 지면 3.8)

## 신수도 (인센티브 정책 발표)

- ☐ 신수도 개발 관련 대규모 인센티브 (Bisnis 1면 3.9)

## 디지털 경제

- ☐ JP모건 “디지털 경제, 인니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될 것” (Kompas 3.5)
- ☐ 디지털 경제 끌어올리기 (Media Indonesia 지면 3.10)

## 에너지 · 탄소포집저장(CCS)

- ☐ Pertamina, Chevron과 손잡고 탄소포집저장(CCS)기술 개발한다 (CNN Indonesia 3.7)
- ☐ 탄소감축과 석유가스 생산 제고 위해 CCS/CCUS 관련 장관령 제정 (에너지광물자원부 3.10)  
\*보도자료

## 인프라 개발 (지역 산업단지 조성)

- ☐ 수방(Subang) 스마트폴리탄 산업단지 1단계, 2024년 3Q 운영 목표로 준비 중 (Kompas 지면 3.9)

## 의료 인력 양성 (해외 파견)

- ☐ 인도네시아, 독일로 간호 인력 보낸다 (Kompas 지면 3.10)

## 다운스트림

### ● 주식(tin) 수출 금지 계획 관련

□ 에너지광물자원부(EDSM) “주석 가공 설비에 4천억 루피아 필요” (CNN Indonesia, 3.3금)

- 에너지광물자원부 리드완(Ridwan) 광물석탄총국장은 기업인들이 정부의 주석 수출 금지 계획을 환영하고 있지만, (설비 마련에) 3천억에서 4천억 루피아 정도의 비용과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래 부연함.
  - 솔더 제품(tin solder) 투자금이 수천억 정도 필요한데, 이는 조단위까지는 아닌 만큼 매우 큰 비용은 아님.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주석 수출금지 조치에 대비한 사전연구를 마쳤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음.
  - 주석 수출 금지 발효 시기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로, 아직 알 수 없음.
-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Mandiri(은행명) Investment Forum(2.1) 계기 “중국은 주석 원광 수입국 1위인데, PCB(인쇄회로기판) 콤포넌트를 인도네시아가 만들면 부가가치가 69배나 된다. 만들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주석 괴(tin ingot/잉곳)를 왜 수출하는가” 라고 언급한 바 있음.

### ● 다운스트림 정책 관련 도전과제

□ “산업계 내 정치로 자원 다운스트림 정책 이행 어려워” (Media Indonesia 지면, 3.4토)

※“자원 다운스트림 속도내기(Tancap Gas Hilirisasi SDA)” 제하 토론회(Media Indonesia 주최, 3.3) 계기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 디딕(Didik) 투자부 전문보좌관연구팀 팀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자연자원 다운스트림화 사업(Program Hilirisasi SDA)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중반 보크사이트 등 원광 수출

금지 조치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산업계 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특정인의 이득(interest) 때문에 정부의 원광 수출 금지 조치와 다운스트림 로드맵\* 이행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됨.
- 2035년까지 투자액이 5,453억불 (8.361조 루피아) 정도 될 것으로 보임.
- 인니는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으로 작년 기준 보유량은 2,100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와 한국보다 많은 수치이지만, 말레이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국 12위이고 인도네시아는 아직 전기차 배터리 수출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름.

※ 다운스트림(downstream)화 로드맵 : 8개 역점분야 및 단계적 수출금지 품목(21개 코모디티) 설정 (Media Indonesia 지면 2.7/Media Indonesia 2.8)

- (다운스트림 정책 시행 역점분야) 광물자원, 석탄, 석유, 가스, 플랜테이션, 해양, 수산, 산림분야
- (21개 품목) 석탄, 니켈,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철강, 금·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석유, 천연가스, 팜유, 코코넛, 고무, 바이오연료, 목재(logs), 송진, 새우, 수산물, 청색꽃게, 해조류, 소금

○ 에이사(Eisah) Indef(경제·금융개발원) 연구자, 인도네시아가 자연자원 다운스트림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야 함.

- 인도네시아는 아직 철강 같은 중고도(medium-high) 수준의 제조 기술 면에서 베트남보다 뒤쳐져 있음.

## □ 니켈 다운스트림 로드맵(~2045년) (Rakyat Merdeka 지면 3.9)

\*3.8 언론인 대상 광물자원분야 정책 설명회(Energy and Mining Editor Society/E2S 주최)

○ 이르완디(Irwandy)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특별보좌관, 정부는 광물자원·석탄분야 대전략(grand strategy)을 마련해 두었으며, 모든 핵심 코모디티에 대한 로드맵도 있음.

- 다만, 제련소 건설시 어려운 점은 ▲파이낸싱(투자비용 부족), ▲에너지 수급, ▲토지획득, ▲허가 지연, ▲막대한 기술 도입 비용임.

※ ESDM이 주관하는 제련소(9) : 가동(5), 건설단계(2), 기획단계(2)

- 정부는 파이낸싱(재원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을 연결해 니켈 제련소(nickel smelter) 사업 성장잠재력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로이 아르판디(Roy A Arfandy) PT Trimegah Bangun Persada\* 사장, MHP(Mixed Hydroxied Precipitate, 니켈 수산화 침전물/니켈 중간재) 생산 공장(고압산침출기술(HPAL) 활용)을 건설하는 데 12억불 정도의 투자액이 필요한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함.
  - \*Harita Nickel의 홀딩컴퍼니
  - Harita Nickel社は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 생산 설비를 마련하고 있음.
  - 전기 공급을 위해 현장(북부 말루쿠州 할마헤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해보려고 하였으나 용량이 크지 않고 수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고압산침출(HPAL)기술 2차 사업 파이낸싱을 위해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음.
- 하이켈 후비스(Haykel Hubeis) 인도네시아 가공정제협회(AP3I) 사무총장, 외국 기업들은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지역 은행들로부터 파이낸싱 협력을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전기차 (인센티브)

### □ 인니 정부 전기차 인센티브 발표 주요 내용

\*3.6(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 및 언론 보도 종합

- (보조금 내용) 전기오토바이 구매,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전기버스에 보조금이 지급됨.
  - 전기오토바이 구매 또는 전환시, 1대당 700만 루피아(한화 60만원)를 제조사에 지급하며, 3.20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
  - 전기오토바이(신제품) 20만대, 전기오토바이 전환은 5만대, 전기버스 138대로 제한

- 구매 보조금 혜택은 1회 구매에 한정
- (보조금 재원 마련)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총액은 1.75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바, 재무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 및 산업부에 추가 예산 재원을 할당하겠다는 계획임.
- (보조금 지급 대상 제조사 요건) 전기차(2륜, 4륜) 생산 설비를 인도네시아 내에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지부품사용요건(TKDN, local content requirement) 40%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차/전기오토바이 브랜드는 5개사로, 자동차 부문 현대(아이오닉5), 울링(Wuling Air ev)과 오토바이 부문 Gesits, Volta, Selis가 해당
  - 전기차 제조사는 정부 보조금 지급 기간(3.20~올 연말) 중에 전기차 가격 인상 불가
  - TKDN 요건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방침
- (기타 세제 혜택) 재무부는 제조사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발표했으며, 에너지 광물자원부와 함께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지급 관련 구체 내용을 마련하고 있음.
  - \*①tax holiday 20년 ②대규모 공제(super deduction) 최대 300% ③ (광물) 사치세 0% ④ 수입(기계, 공장 장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⑤ 전기차 사치세 0% (내연차는 15%~95%) ⑥ 수입 전기차(IKD+CKD) 관세 0% ⑦ 지방세 (자동차등록세) 최대 90%감면 등

## □ 전기배터리 투자 유치 활발해질듯 (Bisnis 1면, 3.8)

- 재정정책원(재무부)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저함량 니켈 원광 등 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
  - 공장에 필요한 수입 기계나 장비에도 부가가치세 0%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압침출법(HPAL)을 사용하는 제련소 건설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 인니 정부가 3.6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내용은 아세안 역내 다른 국

가보다 나은 조건임.

- 누룰(Nurul) 투자부 투자진흥 차관보, 일본, 한국, 유럽, 중국 등 기업과 투자를 논의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의 콘소시엄은 아직 검토 중이며, 주식 지분, 합작기업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아르야(Arya) 인니상의(KADIN) 광물·석탄 상임위원장, 국내 제련소 건설 허가를 제한해 다운스트림 산업화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드리(Andry) Indef 산업통상투자센터장, 인센티브 정책으로 니켈 가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부가가치세 0%로 얻는 결실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발표로) 올해 전기오토바이 제조사 경쟁 치열할 듯 (Binis 산업면, 3.8)

- (Astra Honda Motor 관계자) 아직은 정부의 세부 지침과 인센티브 지급 메커니즘이 발표되길 기다리고 있음.

\*Honda, 인니 오토바이 시장 1위. 2021년 점유율 77.68%

- 정부의 오토바이 보조금 지급 계획이 몇 달 전부터 알려지면서 소매장은 오히려 위축되었으나, 정부 발표 이후 오토바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신수도 (인센티브 정책 발표)

□ 신수도 개발 관련 대규모 인센티브 (Bisnis 1면, 3.9)

- \* 신수도 내 사업자를 위한 사업허가, 사업용이성, 투자 혜택 제공에 관한 2023년 12호 정부령(PP No.12/2023 tentang Pemberian Perizinan Berusaha, Kemudahan Berusaha, dan Fasilitas Penanaman Modal bagi Pelaku Usaha di Ibu

Kota Nusantara)

- **(주요 인센티브)** ①사업권(HGU/Right of Exploitation)95년 ②외국인근로자 10년 ③tax holiday 50~100%(10~30년) ④super tax deduction 250~350% ⑤근로소득세(PPh21/정부부담최종과세) 2035년까지 면제 ⑥중소상공인 세금 면제 ⑦건축권(HGB/Right to Build)80년 ⑧사용권 80년 ⑨ 부가가치세 면제 ⑩ 사치세 면제 등
-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신수도청(IKN Authority) 장관**, 정부는 2023년 12호 정부령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사업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였음.
  - 세무 이행 규정과 구체적인 혜택을 다루는 **시행령이 조만간 제정될 것임.**
- **루스민 라윈(Rusmin Lawin) 인니부동산업자협회(RED) 국제협력 부회장**,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로)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투자자들 또한 특히 부지 이용 관련 투자 계획을 마련하거나 투자 확대 결정을 하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다만, 순수 민간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는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민관협력(PPP) 비즈니스 모델과 현행 규정, 현장 준비도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
- **하리야디 수캄다니(Hariyadi Sukamdani) 경영자총회(Apindo) 회장**, 신수도는 새로운 지역인 만큼 투자 낙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실제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재계 평가)** 인센티브 규정이 발표되었다고 해도 투자유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① 온라인허가 시스템 관련 문제 ② 2024년 대선 이후 사업 지속성 문제 ③ 신수도법(2022년3호) 개정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임.
- **(CORE 경제연구소)** 투자자들은 인센티브와 같은 부양책뿐 아니라, 기초 인프라 구축 여부(전기 등)도 중시함.

- 피터르 압둘라(Piter Abdullah) Segara Institute 소장, 신수도 투자의 매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반드시 대대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 보다는 신수도 개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과 기초 인프라 공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신수도 투자액 ▲CCFG(China Construction First Group) 콘소시엄+PT Risjadson Brunsfield Nusantara Rp 30.8조, ▲한국LH공사 Rp 8.65조, ▲ PT Summarecon Agung Rp 1.67조

## 디지털 경제

□ JP모건 “디지털 경제, 인니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될 것” (Kompas 3.5)

- 헨리(Henry) JP 모건 Head of Indonesia Research & Strategy, 디지털 경제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꽤 큼.
- 비마(Bhima)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CELIOS) 소장,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이낸싱, ▲ (소비) 현금 흐름, ▲디지털 지불방식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
  - (디지털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과제) ①소외지역 인터넷 보급 확산, ②중소상공인-마켓플레이스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③중소 디지털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역 스타트업 재정 지원, ④디지털 발전 속도에 맞는 행정개혁(제도 정비, 행정 역량 강화 등)
  - 이와 같은 정부 과제가 실행된다면 2030년에는 디지털경제가 GDP의 25%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경제 끌어올리기 (Media Indonesia 지면 3.10)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5	2030
인니 디지털 경제 가치(전망)	410억불	440억불	700억불	770억불	1300억불	3000억불



분야별 디지털 경제 가치/거래액		
1	E-commerce	590억불
2	온라인 교통/음식	80억불
3	온라인 미디어	64억불
4	온라인 트래블	30억불

아세안 역내 디지털 경제 가치/거래액(2022년)		
1	인도네시아	770억불
2	태국	350억불
3	베트남	230억불
4	말레이시아	210억불
5	필리핀	200억불
6	싱가포르	180억불

**\*인도네시아 2023년 디지털 경제 성장 요인 : ▲생산 인구, ▲ 세계 6위 스타트업 보유 (2400개), ▲국내 인터넷 사용률 76.8% (인구 2억 1290만명)**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키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임.

\*언론사(Media Indonesia), “어둠을 밝히는 해 2023년 : 디지털과 소비가 답이다 (Menerangi Gelap 2023: Digital dan Konsumsi Jadi Andalan)” 제하 포럼 개최(3.9)

- (에를랑가 경제조정장관) 지난해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인도네시아가 주도했으며, 역내 디지털 경제 거래의 40%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졌음.

- 2025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가치(거래액)는 1300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3000억불까지 증가할 것임.

- 세무엘(Semuel) 통신정보부 정보융합 총국장, 2023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거래액이 2200억불~3600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9위의 디지털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음.

## 에너지 · 탄소포집저장(CCS)

- Pertamina, Chevron과 손잡고 탄소포집저장(CCS)기술 개발한다 (CNN Indonesia 3.7)

\*퍼르타미나(Pertamina) 인니석유가스공사

- CERAWeek 2003(S&P Global) 개최 계기 Pertamina-Chevron 간 Joint Study Agreement (JSA)가 체결\*됨.

- 작년 11월 발리 B20 계기 양측이 합의한 그린 수소·암모니아 개발협력 사업 관련 후속조치

\*아리핀 타스리프(Arifin Tasrif) 에너지광물자원 장관 및 SKK Migas(석유가스업스트림사업집행특위(정부기관) 사장 임석

- Pertamina와 Chevron New Energies는 동부 칼리만탄에서 탄소저포집저장(CCS)·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타당성조사(F/S)를 진행하게 됨.

## □ 탄소감축과 석유가스 생산 제고 위해 탄소포집저장/탄소포집활용저장(CCS/CCUS) 관련 장관령 제정 (에너지광물자원부 보도자료 3.10)

- 아리핀 타스리프(Arifin Tasrif) 에너지광물자원(ESDM) 장관은 3.2 「석유가스 업스트림 사업시 탄소포집저장(CCS)·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실시에 관한 2023년 2호 장관령」을 제정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탄소포집저장(CCS)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배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지질학적 지층을 보유 하고 있는 점을 감안, CCS/CCUS 관련 장관령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 달성은 물론, ▲석유가스 생산제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프라 개발 (지역 산업단지 조성)

### □ 서부자바 수방 스마트폴리탄(Subang Smartpolitan) 산업단지 1단계, 2024년 3Q 운영 목표로 준비 중 (Kompas 지면 3.9)

- 수방(Subang) 산업단지(2,717ha)는 카라왕(Karawang) 산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파팀반(Patimban) 항구, 파팀반 유료 도로(Tol)와 연결돼 있음.
- 2020년부터 1단계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투자액 Rp 5조 (3억 2500만불 상당))

- (PT Suryacipta, Managing Director) (수방 산단이 완공되면 기업들이 카라왕 단지에서 수방으로(저임금 때문에) 이전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이전이라기보다는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카라왕 단지내 공장을 유지하면서 수방으로도 확장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 사무총장) 자동차 산업 투자는 대규모 장기 투자인 만큼, 수방에 공장을 짓는다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것임.
  - 수방 산단은 위치가 동쪽에 가깝고, 유료 도로와 항구 인프라도 갖춰진다면 제품 운송에 유리할 수 있음.

## 의료 인력 양성 (해외 파견)

### □ 인도네시아, 독일로 간호 인력 보낸다 (Kompas 지면, 3.10)

\*독일 베를린 메세(Messe) “베를린 국제 관광 박람회” (3.9) 개최 계기 콤파스 특파원 취재

- 인도네시아 간호 인력 780명\*이 독일로 이미 파견되었거나 파견될 것임.
  - 독일은 2030년까지 간호 인력 30만명이 필요함.
  - 독일로 파견된 간호 인력들은 인도네시아에 돌아와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임.

\*2022년 채용 합격자 180명, 2023년 채용 합격자 600명
- 인도네시아와 독일은 2020년 12월 Triple Win이라는 협력 사업 MoU를 체결하고, 1단계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파견하기로 함.
  - 아셉 소만트리(Asep Somantri)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네시아총영사는 추후 다른 전문직으로도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
- 아리프 하파스 우그로세노(Arif Havas Oegroseno) 주독일인도네시아대사, (인도네시아의 간호 인력을 유럽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세계보건기구(WHO)간 협의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와 독일 양국 노동부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음.
  - 간호 인력들이 독일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일어 교육을 1년간 받아야 하는 점이 애로사항임(독일 정부는 관련하여 독일어 교육프로

그램도 제공).

-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관광·창의경제장관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의료 경험을 쌓은 인력들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아래 언급함.
- 발리에 조성하고 있는 사누르(Sanur) 의료·관광특구에는 아직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함.
-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매년 110억불을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데 사용함. 끝.